

北原白秋의 유모 관련 시 고찰

- 『추억』의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

남 현 정*

目次

서론

본론

1. 性慾史와 유모와의 관계
2. 페랭이꽃과 유아적 性感
3. 수레 백합꽃과 性的 自覺
4. 동백꽃과 乳母의 죽음

결론

서론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 1885-1943)의 제2시집 『추억』(思ひ出, 1911)은 자신의 유·소년기의 체험을 시적 소재로 한 것이다. 특히 시인의 자서전적인 性慾史와 感覺史로서의 의미를 갖는 만큼 시인의 性的 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한편 유아에게는 性愛가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유아기는 기억되지 않지만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으로써, 유아기의 성 욕구 충족과 관련된 일련의 성적 행위는 이후의 성격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¹⁾는 견해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상실되고 마는 기억이기에 어릴 적 기억에서 유아 성욕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발견할 만한데도 찾아낼 수 없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유아의 성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것이다.(유아 성욕이 분명 있

* 인하공업전문대학 강사 일본문학

- 1) 이상, 이주하 『유아의 성 이야기』, 학이당, 1998년, 35쪽. 이러한 지적은 이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1856-1939)의 대표적 저서 『성이론에 대한 3가지 시론(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 1905)』에 의해 주창된바 있다. 『프로이트 성애론』,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프로이트』,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등 이외에도 다수의 저술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단 본 논문은 유아기 발달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하 씨의 저서를 계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있는데 억압에 의해 의식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뜻: 역주)²⁾ 또한 그러한 성욕의 최초대상은 어린아이의 신체 기능을 만족시켜 주는 사람들, 가령, 아이를 먹여 주고 간호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성적 동경의 첫 대상은 성욕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음식과 위안의 원천인 어머니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에 수반하여 일어난다. 바꾸어 말하면 어머니가 최초의 사랑의 대상(love-object)이라는 것이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모의 손에서 자라란 시인에게 유모는 성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집 중에서도 유모와 관련된 작품은 양적으로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시인의 性的 발달 과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추억』에 수록된 유모 관련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시	꽃	시	꽃
車上	장미(ばら)	身熱	왕굴나무(ザボン)
유모의 묘 (乳母の墓)	호박꽃 (南瓜花)	패랭이꽃 (石竹の花)	패랭이꽃 (石竹の花)
키스(接吻)	수레백합꽃 (車百合)	붉은 동백꽃 (赤き梅)	동백꽃(椿)
메밀жат밤나무꽃 (椎の花)	메밀жат밤나무꽃 (椎の花)	간짐보(願人坊)/ 恐怖	없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유모 관련 시속에 꽃이 등장한다. 이 중에 시 「패랭이 꽃」, 「키스」는 유아적 性感에 대한 공포를 묘사하고, 「車上」, 「간짐보」⁴⁾는 유모와의 실생활 속의 추억을, 「身熱」, 「붉은 동백꽃」, 「恐怖」, 「유모의 묘」는 유모의 죽음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 모두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청년 하쿠슈의 입장에서 회상 한 것이다

이러한 꽃을 소재로 한 유모의 작품 가운데 유아의 性感과 사랑의 정감이 어떻게 心象 표현되어 있는가를 고찰하려 한다. 더 나아가 자연물 가운데 꽃은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가장 감각적인만큼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은 초기 하쿠슈의 감각시의 특징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위에 소개한 작품들 중 유모와 관련된 유아의 성감이나 사랑의 정감이 꽃의 감각적 표현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패랭이 꽃」, 「수레백합꽃」, 「메밀жат밤나무 꽃」, 「붉은 동백꽃」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리처드 윌하임, 이종인 옮김 『프로이트』, 시공사, 1999년 200쪽

3) 리처드 윌하임, 전개서 208쪽.

4) 이 시는 시인이 눈 내리는 밤에 유모의 등에 업혀서 음난한 간짐보 춤(願人坊踊り)을 보고 느낀性に 대한 수치심을 노래했다. 「願人坊」는 에도시대 걸식 스님. 『北原白秋集』 『日本近代文學大系』, 角川書店 1970년 320쪽

본 론

1. 性慾史와 유모의 관계

人間 本然의 感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흔히 유아기에서 소년기·사춘기 등의 成長過程을 통하여 學習되어 진다고 일컬어진다.⁵⁾ 따라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異性에 대한 갖가지 關心 가운데, 연애의 감정 역시 어릴 적 環境이나 성장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個別的인 것이며, 이는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性的 經驗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아기의 性的 經驗에 있어서 하쿠슈의 경우는 유모와의 관련성이 깊다. 이를테면 西本秋夫가 밝힌 「白秋年譜」에 의하면, 하쿠슈는 일찍부터 性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유모에게 한 번 우롱 당한 듯한 기억이 있다고 되어 있다.⁶⁾ 이것은 하쿠슈만의 남다른 독특한 경험이자 기억일 수 있다.⁷⁾ 이러한 독특한 성적 경험이 있는 시인의 성욕사에 대한 지적을 들어 보자.

白秋의 성욕사, 그것은 性에 대한 무의식의 상태인 白秋가 때마침 의문을 갖고 공포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잔혹한 행동을 수반하여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⁸⁾ 그러나, 그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약체질에서 온 것도 있다.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 받아 형성되어진 조금은 왜곡된 性에 대한 偏見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⁹⁾ (‘ ’은 필자)

5) 이상, 이주하 전제서, 20-28 쪽

6) 西本秋夫『北原白秋の研究』, 日本圖書センター, 1984年, 29 쪽

7) 프로이트는 1896년에 발표한 「히스테리 병인론」에서, 모든 신경증 환자는 유아기에 성인이나 동료로부터 성적인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편역 『프로이트성애론』 문학세계사 1997, 76 쪽. 여기서 억압(repression)이란 프로이트가 가장 먼저 사용한 정신 분석학적 개념인데 주로 쾌락의 원리와 현실의 원리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정신 과정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면 충동과 욕구가 강화된 행위 규준과 갈등하는 경우이다. 충동과 욕구가 연관된 기억과 이상적인 체계 사이에서 갈등을 빚으면 그 갈등에서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자동적으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행동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종류의 노이로제 증상이 생기면서 암시적인 꿈을 꾸게 되며, 정상적 행동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일탈이 일어나게 된다. 데이비드 스테포드 클라크, 최창호 옮김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푸른 숲, 1965, 272쪽.

8) 작품 「푸른 잠자리」(靑いとんぼ)는 유아의 세디즘적인 요소가 보이는 예가 된다. 「푸른 잠자리 여름 개타로 짝 짝 밟는다」靑いとんぼをきりきりと夏の雪駄で踏みつぶす

9) 白秋의 性慾史,それは性に對する無意識の状態である白秋が,たまたま疑問を持ち、恐怖を感じることから始った。そして、その意識は時には、やさしく、また時には、殘酷な行動を伴ってあらわれることがあった。しかし、それは生來持っている虛弱體質からくるものもある。と同時に、周邊にいる人々から影響されて形成されたやや歪んだ性への感情によってなされたものである。田村嘉勝『思ひ出』にみ

위 문장을 간단히 말하면, 하쿠슈의 성욕사는 왜곡된 성에 대한 감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러한 왜곡된 감정은 선천적인 虛弱 체질과 주변 인물들의 영향 때문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선행 논문을 근거로 볼 때 주변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유모이고, 유모는 시인의 성욕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추정된다 왜냐하면 유모의 손에 자라난 하쿠슈의 전기적 사실과 이러한 유모에 대한 시인의 언급은 시집의 序文인 「나의 성장기」에 잘 드러나 있으며, 시집 「추억」에서 유모에 관해 비중이 큰 작품들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작품을 통해 검토해 가려 한다

2. 패랭이꽃과 유아적 性感

『추억』의 序文으로 유명한 「나의 성장기」(わが生ひたち)는 그의 自叙傳的 문장으로 이 중 유소년시절을 단적으로 드러낸 부분을 인용한다.

이 작은 서정 소곡집에 담겨진 내 15살 이전의 삶은 너무나 유치하고 꾸밈이 없는, 때로는 음탕한 여인의 손을 두려워하는 붉은 패랭이꽃처럼 무지하였다.¹¹⁾

위 문장에서 시인은 15살 이전의 유년시절의 자신을 작고 「붉은 패랭이꽃」¹²⁾으로 비유하면서, 패랭이꽃을 「유치하고 꾸밈이 없고 음탕한 여인의 손을 두려워하는」이미지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패랭이꽃」을 수식하는 「붉은」이라는 색채감은 「패랭이꽃의 추억」(石竹の思ひ出)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 1 · 4 · 5 · 10 연을 인용해 본다

어째서 사람들은 웃는 것일까.
나는 모른다,
아니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어린 세 살때 옛날이어서.

나른한 낮잠 꿈에서 깨었을 때,

る自叙伝とは」『湘南文學』5, 湘南短期大學, 1993年, 35-36 쪽

- 10) 야나가와(현재 福岡縣 柳川市)에서 釀造業을 하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虛弱 체질로 유명하며 주위의 과보호 속에 성장하였다.
- 10) この小さな抒情小曲集に歌はれた私の十五歳以前のLifeはいかにも幼稚な柔順しい、然し節氣のない、時としては淫婦の手を恐るゝ赤い石竹の花のやうに無智あつた -「わが生ひたち」(X) -
- 12) 여러해살이풀. 산기슭의 풀밭이나 시냇가 모래땅에 자생한다. 즐기는 한 뿌리에서 여러개가 나와 끈게 자라고, 잎은 가늘고 긴 선형으로 마주난다. 즐기 끝에 붉은색 꽃이 핀다.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이며, 이 꽃의 학명은 Dianthus 인데, 이는 그리스어의 dios(신)과 anthus(꽃이란 뜻으로 결국 신성한 꽃이란 뜻이다. 중국에서 이 꽃을 石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통통한 어느 여자의 양손은
용수철처럼 서두르는 뜨거운 힘으로
들쳐 앉고, 눈부신 마루 끝으로 데리고 간다.
꽃이 있었네, 붉고 작은 꽃, 페랭이꽃.

천진난만한 방뇨(放尿)
유이는 시름없이 응시하고,
붉디붉은 페랭이꽃은 따가울 정도로 그 눈에 비추고,
무언가, 등뒤로 간지러운, 낡은 회초지 같은 감촉이려나.

무더운 날이었지,
고요한 강가의 밝은 한낮이었지.
찌는 듯한 유년의 공포로
오줌을 누며..... 나는 단지 응시하고 있었지
붉은 꽃, 작은 꽃, 눈에 따가운 페랭이꽃.

<축어역 >¹³⁾

なにゆゑに人々の笑ひしか。
われは知らず、
え知る筈なし、
そは稚き三歳のむかしなれば。

わが惱ましき晝寢の夢よりさめたるとき、
ふくらなる或る女の兩手は
弾機のごとも慌てたる熱き力もて
かき抱き、光れる掾側へと連れゆきぬ。
花ありき、赤き小さき花、石竹の花。

無邪氣たる放尿……
幼兒は靜ころなく凝視めつつあり。
赤き赤き石竹の花は痛きまでその瞳にうつり、
何ものか、背後にて擦ゆし、繪艸紙の古ぼけし手觸にや

暑き日なりき、
物音もなき鹽河の傍のあかるき眞晝なりき。

13) 이하 인용하는 작품의 번역은 축어역 임을 생략함.

蒸すが如き幼年の恐怖より
 尿しつつ..... われのただ凝視めてありし
 赤き花、小さき花、目に痛き石竹の花。

더운 여름날, 배설이라는 생리적 현상에 따른 막연한 공포심과 자신을 앓은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애정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시이다. 「찌는 듯한 유년의 공포로/오줌을 누며..... 나는 단지 응시하고 있었지」(蒸すが如き幼年の恐怖より/尿しつつ..... われのただ凝視めてありし)에서 오줌을 누며 응시하는 붉은 패랭이꽃은 유아의 공포 심리를 표상하고 있다. 또한 「통통한 어느 여자의 양손은/용수철처럼 서두르는 뜨거운 힘으로 들쳐 앉고」(ふくらなる或る女の両手は/弾機のごとも慌てたる熱き力もて/かき抱き)에서는 유모의 손에 자란 시인인 만큼 어머니 보다 포근한 유모의 손길이 연상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부드러운「낮은 회초지와 같은 감촉」(繪艸紙の古ぼけし手触)14)이라는 표현에서, 유아인 시인이 실제로 유모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육감적인 느낌을 가졌을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별한 성적 감각이 위사에서 '패랭이꽃'이라는 시적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의 성적 발달 단계는 「口腔期, 肛門期, 男根期」라는 세 가지의 발달 단계로 나뉜다고 일컬어지는데, 이 가운데 만3세의 어린아이는 「항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어린아이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배설을 통하여 긴장이 해소되는 쾌감을 맛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 부위에 생긴 긴장을 해소하고자 할 적마다 같은 식의 행동이 반복되게 된다. 이렇게 배설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은 감정적 걱정, 화풀이, 분노 및 기타의 원시적 감정적 배설 등의 심리적 원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아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유아기에 받은 느낌들은 정말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억상실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억되지 않는 유아기의 성 욕구 충족과 관련된 일련의 성적 행위는 이후 성격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15)

위 글에서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쾌감을 얻는 배설 행위 역시 성 욕구 충족과 관련된 성적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패랭이꽃은 오줌을 누며 쾌감을 느끼는 유아의 심상이 반영된 꽃이다. 크기에서나 꽃의 인상에 있어서 패랭이꽃은 매우 작은 꽃으로, 동양적인 섬세함과 순수함이 느껴지는 꽃이다. 일반적으로 순결한 사랑 혹은 소년을 상징하는

14) 회초지는 江戸시대부터 행하여지던 일본 전통 그림이 삽입된 책자로, 이 낮은 책자의 부드러운 감촉.

15) 이상, 전계서, 35쪽, 75쪽.

꽃말과 패랭이꽃의 다른 이름 「なでしこから撫子」¹⁶⁾는 「귀여워하는 아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 유아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㉞그러한 유아에게 있음직한 무의식적 성감에 대한 공포를 붉은 패랭이꽃의 인상과 색채감으로 ^㉞시각적으로도 강렬하게 심상 표현하였다. 이처럼 패랭이꽃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㉞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릴 적 경험과 기억 중에서도 ^㉞유모와 관련된 유아적 성적 체험은 시인에게 뚜렷이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㉞이러한 유아적 성적 체험은 배설이라는 본능에 의한 것이지만, 입맞춤과 같은 성적 체험을 제재로 삼은 시에서도 꽃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려고 ^㉞한다.

3. 수레 백합꽃과 性の 自覺

붉은 패랭이꽃이 유아적 성감과 공포심을 상징하는 꽃으로 사용되어졌다면, 「수레 백합꽃」(車百合)¹⁷⁾은 다음에 인용하는 「입맞춤」(接吻)에서 性を 의식하기 시작하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묘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은 채취의 여인 다가와
달아오른 몸을 바짝 붙인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수레 백합꽃
빨강게 달아올라 반짝거리고
잠자리 날지 않고, 바람 멈추고
뒷걸음질치며 무서워하니
땀 뻘 손으로 더욱 드세게
한껏 안아 올리어 입맞춤하네.
괴로움, 쓰라림, 그리운 마음,
풀잎은 시들어, 여치 한 마리
무더운 저녁놀에 튀어 오른다.

なでしこ
鼻のふかき女きて
からだ あつ
身體も熱くすりよりぬ。
そのときそばの車百合^{*}
赤く逆上せて、きらきらと

16) 『北原白秋集』전계서 318쪽.

17) 백합과의 다년초로써, 고산 초원에 핀다. 높이 70-100cm정도이며, 朱赤色の 직경 4cm의 꽃잎을 다섯 개 달고 있다.

とんぼ
 蜻蛉動かず、風吹かず。
 あとし
 後退ざりつつ恐るれば
 汗ばみし手はまた強く^{*}
 つと抱きあげて接吻けぬ。
 くるしさ、つらさ、なつかしさ。^{*}
 草は萎れて、きりぎりす^{*}
 暮き夕日にはねかへる。

性を 자각하기 시작한 시인의 유년기를 제재로 한 「성의 눈뜸」(性の芽生) 중의 한 편이다. 얼떨결에 입맞춤을 당한 유년의 심리를 수레백합꽃이나 잠자리, 여치와 같은 동식물로 비유하여 동화적 환상미를 느끼게 하는 시이다. 수레백합꽃은 「순결」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 어린아이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꽃이다. 또한 보통 꽃과는 달리 꽃 잎사귀가 뒤로 말려져 있다. 이러한 꽃의 인상에서 촉발되었을 「빨갭게 달아올라」(赤く逆上せて)라는 표현에서 시인의 참신한 감각이 엿보인다. 나아가 수레백합꽃의 감각적 인상은 「くるしさ、つらさ、なつかしさ」라는 설명적 묘사 때문에 더욱 또렷히 서정적 자아의心象이 전해진다.

이 시속에 시인에게 입맞춤을 한 여인의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질은 체취의 여인」(臭のふかき女)이나 「달아오른 몸을 바짝 붙인다」(身体も熱くすりよりぬ)라는 표현에서 성숙한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인이 양조업을 영위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거의 유모의 손에서 성장하였고 유모에 관한 시편이 많은 까닭에, 시인의 어린 시절과 유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더 나아가 「땀 뻘 손으로 더욱 드세게/한껏 안아 올리어 입맞춤하네」(汗ばみし手はまた強く/つと抱きあげて接吻けぬ。)라는 구절에서 여인의 인상은, 시 「패랭이꽃의 추억」속의 「통통한 어느 여자의 양손은/용수철처럼 서두르는 뜨거운 힘으로 들쳐 앉고」(ふくらなる或る女の両手は弾機のごとも慌てたる熱き力もて/かき抱き)라는 구절에서 연상되는 여인의 이미지와 흡사하다. 이러한 점들에서 입맞춤한 여인이 유모라고 여겨지게 한다.

어린아이에게 입맞춤이란 지극히 자연스런 애정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수레백합꽃 빨갭게 달아올라, 반짝거리고」(車百合赤く逆上せて、きらきらと)라는 표현에서 어린아이의 흥분된 심리상태를 수레백합꽃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입맞춤이라는 행위를 결코 순수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유년의性に 대한 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전술한 시 「패랭이꽃의 추억」은 배설이라는 본능적 생리현상에 따른 유아의 성감을 제재로 한 것이고, 이 시는 비록 입맞춤을 당한 입장이지만 일종의 자각적 성행위의 하나인 입맞춤이 제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성적 경험을 다룬 작품에는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발육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과 그에 따른 잠재적 성에 대한 공포심의 강도가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유년의 성에 대한 공포심이 반영된 내면 세계를 패랭이꽃이나 수레백합꽃은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입맞춤을 관능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소년의 섬세한 감정을 노래한 「입맞춤 후」(接吻後)라는 작품에서도 꽃은 시인의 내면세계를 표상하고 있다. 제1·2·5연을 인용해 보자

두려운 그 여자, 그리운 그 밤,
다음날 해는 서쪽에서 떠오르고,
두려움과 빛에 런던 핀다.
피처럼 붉은 런던.

뛰어 오르는 투구풍뎡이,
나는 단지 런던에
말없이 떨어져 두려워한다.
——내 생의 첫 키스.

怖ろしきその女、
なつかしきその夜。
翌あしたの日は西よりのぼり、
恐おそれ怖と光にロンドン咲く。
血のごとく赤きロンドン。

はねかへる甲虫、
われはただロンドンに
言葉なく顫へて恐る。
——わが生の第一きスの接吻。

「ロンドン」이란 꽃은 柳河의 방언으로 「채송화」(松葉牧丹)를 일컫는데,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하쿠슈 시 특징의 하나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야나가와의 방언인 꽃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인의 실제 체험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채송화는 첫 키스 후의 소년 하쿠슈가 느낀 묘한 감정을 표상하고 있다.

이 시를 앞에 인용한 「입맞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어른이 아이에게 애정표현으로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생의 첫 번째 키스」(わが生の第一の接吻이라고 한 만큼, 이 시에서 시인은 입맞춤을 성적 체험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성적체험을 한

후 「다음날 해는 서쪽에서 떠오르고」(翌の日は西よりのぼり)라고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묘사는 시인의 첫 키스의 체험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인상을 「피처럼 붉은 런던」(血のごとく赤きロンドン)이라는 검붉은 꽃의 색채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피처럼 붉은 런던」은 소년이 느끼는 두려운 여성에 대한 감각이 응축된 표현이다. 여기서 붉은 색은 관능에 대한 공포를 함축하는 색채어휘이지만 「피」처럼 붉다고 비유하고 있어서 더욱 강렬한 소년 하쿠슈의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인의 독특한 성적 체험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첫 키스의 기억이라면 이처럼 강한 두려움으로 각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키스를 한 대상에 대해서도 단지 「おそろしきその女」(두려운 그 여자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첫 키스를 한 상대가 두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적어도 자기 또래의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러나 다분히 속물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로티시즘(eroticism)으로 치부되기 쉬운 일련의 성적 경험이 꽃 이름의 어감과 꽃의 색채감이 어우러져 저속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하쿠슈 시의 매력이다. 「입맞춤」과 「입맞춤 후」에서 꽃은 입맞춤이라는 행위에 관한 유년의 공포심을 표상 하지만, 「붉은 동백꽃」에서 동백꽃은 죽음과 강한 사랑의 감정을 표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4. 동백꽃과 유모의 죽음

어릴 적 하쿠슈에게는 유모가 둘 있었는데, 두 유모 모두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러한 유모에 대한 실화를 피력한 글을 「나의 성장기」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3살 때, 심한 디프스에 걸렸다. 그래서 모감주나무 꽃이 하얗게 지는 그늘에서 지나가는 장례행렬을 보고 나는 비로소 유모의 죽음을 알았다. 그녀는 내 몸의 열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병에 전염되어, 내 대신 죽은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이렇다할 만한 것이 없다. 단지 어머니의 품에서 몸을 뺐어 하얀 관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집에 온 유모의 이름은 오이소라 했다. 나는 그녀와 호카메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가서는 언제나 오랫동안 체류하였다.¹⁸⁾

위 글은 첫 번째 유모와 두 번째 유모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으나, 두 번째 유모의 이

18) 三歳の時、私は劇しい窒扶斯に罹つた。さうして朱薬の花の白くちるかげから通つてゆく葬列を見て私は初めて乳母の死を知つた。彼女は私の身熱のあまり高かつたため何時しか病を傳染されて、私の身代りに死んだのである。私の彼女に於ける記憶は別にこれといふものもない。ただ母上のふところから伸びあがつて白い柩を眺めた時、その時が初めのまた終わりであつた。次に來た乳母はおいそと云つた。私はよく彼女と外目の母の家に行つては何時も長々と滞留した。「わが生い立ち」XXVI~XXVII)

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 유모와의 추억보다 두 번째 유모인 오이소와의 추억이 하쿠슈에게 뚜렷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하쿠슈에 대한 유모 오이소의 사랑의 정도를 「恐怖」라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는 임종에 이르러서 까지도 강한 집착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유모의 존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제 2연에서 「유모이지만, 줄곧 두렵다./집착이여, 임종의 찰라/눈물 마른 노인의 눈은/어머니보다도 격한 사랑으로/나를 바라보며——창백했어라.」(乳母なれど、せちに恐れき。執着よ、臨終の刹那、/涙なき老の眼は、/母よりも激しき愛に我みつめ——青く白みき。)라는 구절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모의 사랑에 대해 시인은 유모가 혹시 자신의 생모가 아닐까 하는 의심과 공포심을 갖게 된다.¹⁹⁾ 한편,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유모에 대한 질투와 우롱 당한 기억을 상기해 볼 때, 어린 시인에게 유모의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었을까?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에 「椎の花」(모밀жат밤나무꽃)이 있다

나무의 꽃은 아련히 진다.
 날도 저물어, 모밀жат밤나무 언덕,
 그림자 싸늘한, 희미한 빛에
 그대 울고, 나도 매달린다
 머리 향인가, 눈물어린 눈동자인가
 옷자락이 살랑이고, 소매에 가늘가늘,
 벌레 운다, ……이내 시름에.

아아, 이렇게, 그대여, 죽을 때,
 이토록 매달리고, 이렇게 울었던가.
 그 머리카락인가, 지금인가, 꿈인가,
 그런데 알 수 없다, 전생의 꿈.

木の花はほのかにちりぬ。
 日もゆふべ、椎の片岡、
 影さむみ、薄ら光に
 君泣きぬ、われもすがりぬ。
 髪の香か、目見のうるみか、

19) 이를테면 「青い鳥」(『추억』)이란 시의 마지막 부분 「棄兒の棄兒のTONKA JOHN/眞實のお母さんが外にある。」(버려진 아이, 버려진 아이 톤카존/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생모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여기서 「TONKA JOHN」은 큰도련님을 동생과 비교해서 부르는 柳河語. 거의 白秋의 유년시절의 고유명사로 사용되어 졌다.

衣そよぎ、裾にほそほそ、
虫啼きぬ、—— かかるうれひに。

ああ、かくて、君よいくとき、
かくすが継り、かくや泣きけむ。
そのかみか、いまか、うつつか、
さて知らじ、さきの世のゆめ。

모밀жат밤나무 꽃이 지는 배경속에, 「君」(그대)에 대한 사랑과 죽음을 예감하며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 속의 그대는 유모 오이소의 존재이지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 보내는 심정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유모의 존재에 대한 어린 시인의 각별한 애정을 느끼게 된다. 특히 유모의 존재를 「머리 향」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관능적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어 유모에 대한 시인의 감정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즉, 시인에게 유모는 일종의 성적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같은 유모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시라 해도 다음에 인용하는 「붉은 동백꽃」(赤き椿)은 유모의 모성애보다 더한 사랑으로 인해 한층 공포에 떨고 있는 시인의 내면세계를 표상하고 있다.

내 눈에 붉은 산동백꽃.
밖 공기에 불긋불긋,
소리없이 빛나다, 똑 떨어진다.
지금 죽음에 임한 나의 유모의
슬픈 눈매……산동백꽃.

흉한 얼굴을 찡그리며
가축처럼, 울고 또 우는지,
내 손을 잡는 것은, 빨아드림은,
딴고, 더럽고 두려웠어라
가장 사랑하는 손인가, 영혼인가.

그 눈에 붉은 산동백꽃
작은 머리에 불긋불긋,
소리없이 빛나다, 똑 떨어진다.

わかめ眼に赤き藪椿。

外の空氣にあかあかと、
音なく光り、はた、落つる。
いま死にのぞむわが乳母の
かなしき眼つき……藪椿。

醜き面をゆがめつつ
家畜のごとく、はた泣くは、
わが手を執るは、吸ひつくは、
憎く、汚なく恐ろしき
最愛の手か、たましひか。

かの眼に赤き藪椿
小さき頭脳にあかあかと、
音なく光り、はた、落つる。

우선 동백꽃의 비유가 들어있는 행을 살펴보자. 「내 눈에 붉은 산동백꽃」(わが眼に赤き藪椿), 「그 눈에 붉은 동백꽃」(かの眼に赤き藪椿)에 「눈」이란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슬픈 눈매……동백꽃」(かなしき眼つき……藪椿)에서 하쿠슈가 유모의 임종 직전에 본 유모의 애통한 눈매와 동백꽃을 동일시하고 있다. 즉 시인은 동백꽃의 지는 영상과 유모의 임종을 교차시키면서, 함께 공유했던 정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藪椿」란 산야에 자생하는 동백꽃으로 언젠가 유모와 함께 바라본 적이 있는 추억 속의 꽃인 동시에 사랑을 상징하는 꽃²⁰⁾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밟고, 더럽고 두려웠어라 가장 사랑하는 손인가, 영혼인가.」(憎く、汚なく恐ろしき/最愛の手か、たましひか.)라는 표현에서 동백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모성애를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小さき頭脳にあかあかと、/音なく光り、はた、落つる.」(작은 머리에 울긋불긋/소리 없이 빛나다, 똑, 떨어진 다.)는 표현은 동백꽃이 질 때의 독특한 모습에서 연상된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꽃이 다름 아닌 동백꽃이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동백꽃은 유모의 비통한 죽음과 모성애를 강

20) 「それはいつか乳母とともに眺めた追憶の中の椿で愛の象徴であろう」(그것은 언젠가 유모와 함께 바라본 추억 속의 동백꽃으로 사랑의 상징일 것이다)- 『北原白秋集』전계서, 334쪽.

21) 동백꽃은 꽃잎이 한 잎 한 잎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송이가 쑥 빠져 떨어진다. 이처럼 통째로 떨어지는 까닭에, 「春首落」이라고 하였고, 불吉을 상징하는 나무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떨어진 꽃송이의 꽃잎은 모두 하늘을 향한다고 하는데, 마치 유언이나 하듯이 소리를 내면서 통째로 쑥 떨어지는 모습이 죽음을 재촉하는 꽃이라는 환상을 자아내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백나무의 꽃이 지는 그 嬋娟한 모습은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두고 가장 극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한다.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3, 넥서스, 1998년, 220-222쪽.

렬하게 인상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집 「추억」중 유모와 관련된 작품에는 유아적性感이나 성적 체험, 유모의 죽음과 사랑 등 유년기에 형성된 성에 관한 심리가 패랭이꽃이나 수레백합꽃, 채송화꽃, 메밀жат밤나무꽃, 동백꽃 등 특정 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꽃들의 형상·색채·특성 등에 의해 소년 하쿠슈의 성감과 사랑의 감정이 감각화 되어 있다. 그러한 꽃의 감각에는 대부분 강렬한 性的 공포심이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억압에 의해 왜곡된 성적 감정의 단서가 된다. 즉 강한 모성애를 지닌 유모의 존재이지만 하쿠슈에게 성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성적 감정이 억압되고 공포스럽게 왜곡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와같이 꽃의 본연의 아름다움이나 미적 정감을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시인의 의식세계와 밀접한 연관 속에 심리세계를 형상화시키는데 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하쿠슈의 시에 있어서 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금후 다른 작품집에서도 꽃을 소재로 한 작품 분석이 요망된다.

【參考文獻】

- 北原白秋 『北原白秋全集』17, 岩波書店, 1985, pp.16-17
- 北原白秋 『思ひ出』ほるふ出版, 1911
- 北原白秋 『桐の花』東雲堂書店, 1913
- 『北原白秋』『日本の詩歌』9, 中央公論社, 1968
- 田村嘉勝 『湘南文學』5, 湘南短期大學, 1993, pp.35-36
- 飯島耕一 『北原白秋 ノート』小澤書店, 1978, pp.227-229
- 大岡信 『四季の歌、戀の歌』筑摩書房, 1979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옮김, 『이미지와 상징』 까치글방 1997, p.17, p.18
- 龜井勝一郎 『愛の無常について』講談社, 1966
- 木原孝一 『日本の詩の流れ』ほるふ出版, 1975, p.93
- 木保修 『白秋研究』文化書院, 1946
- 北原東代 『白秋の水脈』春秋社, 1997, pp.5-46
- 久保節男 『白秋の風景』西日本新聞社, 1984, pp.50-53
- 關良一 『日本近代詩講義』學人登社, 1964
- 關良一 『近代詩の形態と成立』教育出版センター, 1976, pp.193-237

要 旨

花は自然物の中で一番視覚的にも嗅覚的にも、その感覺性が際立つ存在である。そのような花を素材にして作られた作品には感覺詩人と言われる北原白秋の特徴がよく表れている。

特に詩集『思ひ出』は詩人自身の性慾史であり、感覺史であるといったような作品が多い。

そのなかで乳母に關する幼児からの性感から愛の情感がどのように表現されているのかを探ってみた。とくに詩人だけの特別な乳母の記憶との關係で花がもつ意味性または象徴性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例えば石竹の花、車百合、椿の花などにみえる花のイメージから性に對する恐怖、そして乳母の愛と死による、戀愛感情の屈折があったことを確認したといえる。

美しい自然物のなかで花の實體は何より鮮明に自分の内面世界を可視的に印象づけ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に作品のなかの美の世界には花はただの自然物の實體を超越し超現實的で、幻像的な詩的雰圍氣を醸し出す一要素としての役割をはたしているともいえる。即ち、詩人は多様な花という現實的な素材に自分の情感を注射し幻像的な花のイメージに再構成していると思う。

キーワード： 유아의 性感, 유모의 사랑과 죽음, 페랭이꽃, 수레백합꽃, 동백꽃

투 고 : 2005. 8. 31
1차 심사 : 2005. 9. 10
2차 심사 : 2005. 10. 1

住 所 : (405-7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77 풍림아파트 120 동 1801 호

電 話 : 010-7113-6283

e-mail : inha6283@yahoo.co.kr